고려 전 · 중기(918~1213)의 국왕 책봉(冊封)과 관복(冠服) 사여

이 민 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Investiture of King and Bestowment of Robe and Crown in the Early to Middle of Goryeo Dynasty

Min Jung Le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2, 2014; Revised (October 13, 2014; November 4,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Abstract

King and Crown Prince's Gwanbok (冠服) written in 『Goryeosa』 Yeobokji was the bestowment of robes and crowns by the Son of Heaven who yielded hegemony over East Asia. It designated the King and Crown Prince of Goryeo as real and authentic as well as confirmed the political status of Goryeo in East Asia. In 『Goryeosa』 Yeobokji, the King's Gwanbok is of higher stature than the adornments of the King's ritual robes (祭服) and court robes (朝服) which held a domestic political significance. In East Asia, bestowment of voiture (車) and robe (服) usually appeared in the multistate system. In the 10th century, the Later Jin (後晉) spread the idea of investiture and bestowment to Khitan (契丹). The Liao (遼) or Khitan and the Jin (金), the Conquest Dynasties, endeavor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he Son of Heaven by imitating Sinocentrism by means of investiture and bestowment. In the reign of XingZong (興宗) and DaoZong (道宗) of Liao, the ritual of investiture and bestowment for Goryeo was in the making, adding titles and bestowments in the occasion of the elevation of Emperor Liao's honorific title. King Munjong (文宗) of Goryeo reached 9-bestowment which symbolized the first of the feudal lords in East Asia. This exceptional respect for Goryeo went on to Jin's investiture and bestowment. From then, 9-bestowment was defined as an international decorum (禮) toward Goryeo. This historical study of Gwanbok (冠服) of 『Goryeosa』, indicates: First, the King's Ceremonial Robe with Nine-symbol Design were designated from the early to middle of the Goryeo Dynasty by investiture and bestowment from the Conquest Dynasties. Second, the bestowed King's Robe and Crown had simultaneous functions for domestic order and international order. Goryeo did not follow ideological Sinocentrism but followed practical interest by accepting Confucian Li (禮) philosophy passed on through the Conquest Dynasties.

Key words: 『Goryeosa』 Yeobokji, Bestowal of robe and crown, King of Goryeo, Investiture, 9-Bestowment; 『고려사(高麗史)』 여복지(輿服志), 관복(冠服) 사여, 고려 국왕(高麗國王), 책봉(冊封), 구석례(九錫禮)

I. 서 론

[†]Corresponding author
E-mail: sephilotte@hanmail.net

『고려사』(Kim & Jeong, 1451/2011) 여복지 관복(冠服)
의 소항목 중 왕 관복(王冠服), 왕비 관복(王妃冠服), 왕

세자 관복(王世子冠服)에는 요(遼), 송(宋), 금(金), 명(明)으로부터의 복식 사여 기사들을 싣고 있다. 그리고 왕 관복은 왕의 제복(祭服)과 시조지복(視朝之服)보다 앞서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과 그 위계(位階)를 통해 관복이 고려 조정(朝廷)의 복식을 총칭하면서, 동시에 중국 왕조에서 사여된 복식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 중국 왕조에서 사여된 복식이라는 의미의 관복이 제복과 시조지복보다 위상이 높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You (1973)는 중국 왕조에서 사여된 복식이라는 의미의 관복을 사여 관복이라 명명한 바 있다.

『고려사』 여복지에 기록된 사여 관복에 대한 접근은 『고려사』 여복지의 분석 중에 이루어지거나(Kwon, 1990; Park, 2013), 고려 국내의 관복(官服) 체계 내에서 설명이 시도되었다(Kim, 2010; Yi, 2011). Yim(1993)이 고려와 교류하였던 주변 중국 왕조와 관련하여 관복과 책봉과의 관계를 밝혀내기는 하였으나, 고려 복식 연구의 결론은 대부분 자료의 부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M. S. Kim, 2008). 한편, 인접 학문 분야인 역사학과 외교 사학에서는 고려 전·중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다원적 국제 질서로 바라보는 연구동향(Lee, 2008; Yun, 2005, 2007)과 함께 고려 국왕 책봉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Shim, 2002). 그러나 아직 사여 관복에 대해서는 주로 세부 품목의 유무를 통해 면복(冕服) 제도의 가능성에 대해 유추하거나 청사(請賜)인지 자발적 사여인지의 관점에서 논해지고 있고, 사여 관복의 의미와 위상에 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 전·중기 동아시아 국제 외교 관계였던 책봉과 책봉 시에 예의(禮儀)의 신물(信物)을 동반하는 정치 행위인 석명(錫命)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과 왕세자 관복의 기사를 해석하고, 관복의 의미와 그 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시기는 다원적 국제 질서가 존재하였던 고려시대 전·중기로 고려가 건국된 918년부터 금에게 마지막으로 책봉된 강종이 서거한 1213년까지로 한정하였다.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의 사여 기사도 강종원년(1212) 금으로부터 사여된 관복 기록이 마지막으로, 이 시간적 범위는 오대(五代), 송, 요, 금의 중국 왕조와 관련된 시기이다. 따라서 원 건립기 이후 명의 사여 관복 기사가 실린 왕비 관복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시기 요는 916년 ‘거란’으로 국호를 정한 후, 936년에서 937년 사이 ‘대요’라 칭했다가, 다시 정복 전쟁 기운이 강해지던 983년 ‘거란’으로 국호를 바꾸었고, 1066년부터 다시 ‘대요’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기에

따라 변하는 요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국호 변경에 따른 관복 사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적 실체로서 거란과 요를 함께 지칭할 경우 한족의 용어인 ‘요’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 전·중기, 책봉의 역사적 사례들을 검토한다. 둘째, 책봉에 동반된 예물을 사여하는 의례인 석명례(錫命禮)를 고찰한다. 이 때 최고 예우의 표징으로서의 구석(九錫)을 설명하고, 거란에서 관복 사여가 시작되었던 이유를 밝힌다. 셋째,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과 왕세자 관복을 책봉과 석명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찰한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문헌으로 『고려사(高麗史)』, 『삼국사기(三國史記)』, 『동문선(東文選)』을 살펴보고 있으며, 중국 기록은 『주례(周禮)』, 『춘추공양전주소(春秋公羊傳注疏)』, 『한시외전(韓詩外傳)』, 『모시정의(毛詩正義)』, 『예문유취(藝文類聚)』, 『자치통감(資治通鑑)』, 『전당문(全唐文)』, 『삼례도(三禮圖)』,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 『원사(元史)』, 『대명회전(大明會典)』,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을 검토하였다. 중국 기록은 『주례』와 『삼례도』를 제외하고, 중국기본고적고(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Beijing Airusheng shuzihua jishu yanjiu zhongxin, 2011)를 이용하였다.

II. 고려 전·중기의 책봉과 구석례

1. 고려 전·중기(918~1213)의 책봉(冊封)

동아시아 유교문명권 안의 세계는 천하(天下)로 표현되었으며, 천하의 중심에는 천명(天命)을 받은 천하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갖는 천자(天子)가 존재했다. 천자 아래 왕에서 격상된 위호인 황제(皇帝)들과 대왕(大王)들 그리고 왕(王)이 존재했으며, 천자는 책명(冊命)을 통한 대예전(大禮典)을 통해 그들을 포상하여 그 천하 안에 머물게 했다(Shim, 2002).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계서적(階序的) 질서인 예(禮)로 관념화된 사대교린(事大交隣)은 상위-하위 권위체 사이의 ‘자소사대(字小事大)’와 대등한 인접국 사이의 수평적인 ‘교린(交隣)’이 합쳐진 말이다. 이 중 국력의 강약 차이로 말미암은 대국(大國)과 소국(小國) 사이의 사대 관계는 책봉(冊封)·조공(朝貢) 제도라는 외교적 형식으로 제도화되었다(Lee, 2008). 책봉은 항상 조공을 동반하였으며, 조공은 책봉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두 제도는 서로 표리 관계였다(Shim,

2002). 책봉은 대륙을 장악한 패권자가 주변 국가의 지배자에게 관직과 작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하사함으로써 그의 독립된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하는 제도이며, 조공은 수공국(受貢國)에 정기적으로 또는 요구가 있을 때 일정한 양의 공물(貢物)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고려 전 · 중기 동아시아의 책봉 사례들은 다원적이고 상대적이었던 당시의 국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후진(後晉) 황제 석경당은 936년 거란으로부터 황제 책봉을 받은 후, 938년에는 거란 황제와 황태후에게 존호책례(尊號冊禮)를 시행하였다. 1118년 요는 천자곤복(天子袞冕)을 준비하여 금 황제 아골타(阿骨打)를 황제로 책봉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한족(漢族) 왕조를 친하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틀이 깨졌으며, 국제적 강자가 등장했을 경우 책봉을 통해 국제적 평화관계를 유지시키고 왕조를 보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책봉은 해당 국왕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그 나라를 품에 안으려는 외교 의례였다(Park, 2013). 이 시기 책봉 후 관작을 올리거나 공신호를 하사하는 가책(加冊)이 시행되었는데, 가책은 자국의 세력이 강할 때에는 권위 있는 황제로서 번국(藩國) 위에 군림하고, 자국이 약할 때에는 번국을 묶어 들으로써 세력균형을 이루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Shim, 2002).

고려 전 · 중기의 고려는 오대, 송, 요, 금과 사대하여 책봉 · 조공 관계를 맺었다. 고려는 태조16년(933) 왕건이 후당(後唐)에 의해 고려 국왕에 봉해진 것을 시작으로 성종11년(992)까지 오대, 송으로부터 책봉, 가책 또는 공신호를 받아 오다가 성종12년(993) 요의 침입으로 사대의 대상을 바꾸어 요와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태조 왕건의 훈요 십조에서 알 수 있듯이 건국 초에 고려인은 거란족, 여진족을 고려보다 문화적으로 낙후한 이족(夷族), 금수(禽獸)로 생각해왔다(Jang, 2009). 그러나 고려는 화이론(華夷論)보다는 국제정세를 관망하면서 당시 중국 대륙의 패권자였던 요와 금의 책봉 · 조공 체계를 택하여 강대국과의 불필요한 대결을 피해 왕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실리를 취하였다(Shim, 2002).

고려는 성종15년(996) 3월 요와 첫 책봉 · 조공 관계를 맺은 이후 약 110여년간 요와 공식적 국교를 유지하여, 덕종을 제외한 목종, 현종, 정종, 문종, 선종, 숙종, 예종까지 8명의 고려 왕이 요에 의해 책봉받았다. 요는 후계 구도의 안정화를 위해 목종의 태자 훈과 숙종의 태자 우

까지 책봉하기도 하였다(Kim, 2011).

요와 국교 수립은 순탄하지 않았다. 요는 성종의 대를 이은 목종을 거듭 책봉하여 국교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나, 목종12년(1009)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등극하자, 황제의 책봉 권한에 손상을 입었다는 빌미로 현종1년(1010) 겨울 고려에 침입하였다. 1012년 이후 요의 계속된 침입은 현종의 친조(親朝)를 성사시켜 고려의 항복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는 현종7년(1016)부터 송의 연호를 시행하면서 친조를 거부하였고, 현종10년(1019) 귀주대첩에서 이룬 고려의 대승으로 인해 요의 친조 요구는 멈춰졌다(Koo, 2010). 귀주대첩 후 고려는 요와 책봉 · 조공 관계를 체결했고, 요는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거복의물(車服儀物)을 보냈다. Koo(2010)는 귀주대첩 후 고려가 요와 맺은 책봉 · 조공 관계는 지배 · 종속 관계가 아닌 국가 간의 평화적 타협을 위한 외교 수단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현종의 대를 이은 덕종은 요와 국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책봉받지 않았고, 정종 대에 요와 국교를 재개하여 정종5년(1039) 책봉과 동시에 공신호를 사여받았다.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 가장 처음 부분의 공식적인 관복 사여 기록은 바로 요와 국교가 정상화 된 정종9년(1043)의 가책 시 요에서 사여된 관복 기록이다.

요 도종 연간 요의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 송은 고려에게 책봉을 통한 국교 재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송과 책봉의 형식을 따지 않는 국교 재개로 이념보다는 실리를 따르는 외교 정책을 폈다. 예종11년(1116) 금이 요를 침략하여 위망(危亡)한 형세가 되자 고려는 요 연호인 천경(天慶)을 제거하고 중립적인 갑자(甲子)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종20년(1142)까지 국제 정세를 관망하면서 책봉받지 않았다.

금을 세운 여진족은 고려가 건국할 당시부터 고려에 조공하고 그 영향을 받아오던 종족이었다. 그러나 금이 강성하여 1125년 요를 멸망시키고, 1142년 3월 남송 황제를 책봉하게 되자 고려는 현실적인 정세를 중시하여 같은 해 5월 금으로부터 책봉 받았다. 그리고 1212년 강종의 책봉까지 총 6명의 고려 왕이 금에게서 책봉되었다. 1213년 고종 즉위 후에는 몽골이라는 새로운 대륙의 패권자가 흥기하고 있었으므로 금에 책봉을 요청하지 않았다.

고려 태조 이후 각 왕들은 즉위와 더불어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책봉을 요청했고, 해당 왕조에서는 일정한 격식에 따라 책명사(冊命使)를 파견하여 책봉 의식을 통해 고려 국왕을 책봉했다. Shim(2002)은 고려 왕의

책봉은 대륙의 패권자에게 책명을 통한 중화 관념과 관념적 세계 지배라는 이념의 실현을 이루게 해 주었고, 고려 국내에서는 강대국과의 불필요한 대결을 피해 왕조의 안녕을 도모하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실리를 취하게 하였다고 평가한다.

고려는 책봉·조공 관계에 있으면서도 요, 금을 중화로 인식하지 않았다. 반면, 정식 국교가 단절된 북송, 남송을 중국, 중화로 표현함으로써 중화 세계의 정통 왕조로 인정하였다. 고려인들의 북방 민족에 대한 인식은 한족 왕조 여부를 중시하는 화이론(華夷論)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정세를 중시하여 요와 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인식론이었다(Jang, 2009). 책봉·조공 관계는 외교 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고려는 강약이 엄연한 국제 질서에 적응하여 중국에 대해 제후국의 위상을 수용하여 실리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황제국의 정치 형태를 갖추어 외왕내제적(外王內帝的) 위상을 도모하기도 하였다(Lee, 2012; Noh, 1999).

2. 석명(錫命)과 구석(九錫)

고려 왕의 책봉에는 관작(官爵)의 수여와 함께 예의의 신물이자 표징(表徵)인 예물(禮物)이 동반되었다. 책봉에 동반되는 예물의 사례는 중국 서주(西周: BC11세기~BC771) 시기의 빈례(賓禮)에서 발견된다(Zhū, 2013). 고대 제왕(帝王)이 신료들에게 작위(爵位), 복식, 수레와 의장(車仗), 재물이나 비단[幣帛] 등의 상(賞)을 내리는 것을 석명이라 하였으며, 석명례란 이와 같은 석명에 따른 예를 말한다. ‘석(錫)’과 ‘사(賜)’는 고대 중국에서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었고,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내릴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명(命)’은 『춘추공양전주소』 권13 문공(文公) 원년(元年)편에 의하면 “錫者何 賜也 命者何 加我服也”라 하여 사명의 의미로 내게 주어진 의무라는 뜻이다. 석명은 특별한 공적이거나 공훈, 품덕이 있는 신하에게 내리거나 나라에 큰 축전이 있을 때 내렸다(Zhū, 2013). 『자치통감』 한기(漢紀) 권36에 의하면 “此皆天子制度尊之 故事事錫與 但數少耳”라 하여, 천자가 제도로써 석명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내려 주었다고 한다. 석명은 황제의 위엄과 그의 통치에 일조하는 정치 행위였으며, 따라서 『예문유취』에서는 석명을 치정부하(治政部下)편에 위치시켰다.

『주례』(周禮 [Zhouli], 1706/2002) 대종백(大宗伯) 편에는 크고 작은 제후국들 사이의 지위를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아홉 등급의 명(命)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전명(典

命)편에는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다섯 등급의 제후국에게 주어지는 명의 수인 예수(禮數)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독립적 제후국 우두머리인 상공(上公)의 예수는 9이다. 12가 천자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한(漢) 효명황제(孝明皇帝)부터이다. 『전당문』 권136 면복의(冕服議)에 의하면 영평(永平)2년(59)에 효명황제가 십이장(十二章)을 구비하여 천지(天地)에 제사지내기 시작하였다.

천자가 제후에게 내리는 석 중 가장 높은 구석은 『예위(禮緯)』 함문가(含文嘉)편에서 유래한다. 중국 경서의 반대 개념이자 예언과 신비로운 내용을 담아 참위서로 일컫는 『예위』의 내용은 『시경(詩經)』의 해설서인 『한시외전』과 『모시정의』에 남아 전해진다. 그 중 『한시외전』 권8 한록(旱麓)의 소(疏)에는 구석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일석이 거마(車馬)이고, 재석이 의복(衣服)이고, 삼석이 호분(虎賁)이고, 사석이 악기(樂器)이고, 오석이 납폐(納陛)이고, 육석이 주호(朱戶)이며, 칠석이 궁시(弓矢)이고, 팔석이 부월(鈇鉞)이고, 구석이 저창(租鬯)이다. 『모시정의』 권16에는 후한(後漢)대의 송균(宋均)이 설명한 구석의 의미가 실려 있다. 그 중 거마와 의복을 살펴보면 “進退有節 行步有度 賜之車馬 以代其步言成文章 行成法則 賜以衣服 以表其德”로 나아가거나 후퇴할 때에 절제가 있고, 걸음걸이에도 법도가 있기에 거마를 사여하여 그 행보를 따르게 하며, 단어가 문장이 되고, 행동이 법칙이 되듯이 의복을 사여하여 그 덕(德)을 표현하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자가 제후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구석은 선진(先秦) 시기부터 모범적 도덕심과 문무(文武) 재능으로 제후들을 감화시키는 천자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으며, 제사(祭祀)와 같은 특수 예식이나 정벌과 같은 권력을 향유할 때 사용되었다(Zhū, 2013). 특히 의복은 감응적 우주와 위계적 국가 질서가 몸에 통합된 상징물이었다(H. J. Kim, 2008).

이와 같은 구석은 전한(前漢)을 멸망시키고 신 왕조(AD 8~24)를 건국한 왕망(王莽)에 의해 역사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왕망은 한대에 유교를 중시하고 주대(周代)의 정책을 폈던 권신(權臣)으로, 당시 유행하던 오행참위설(五行讖緯說)을 교묘히 이용하여 구석례(九錫禮)를 통해 황제 아래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다가, 다시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된 인물이다(Poong, 2002/2005). 이 때문에 『한전(漢典)』에 의하면 구석이 황위 찬탈의 흑심을 품고 황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九錫 [Jiǔcì], 2004-2013). 『자치통

감』한기 권36 효평황제하(孝平皇帝下) 원시(元始) 5년 5월의 왕망의 구석례에 대한 기사에는 “策命安漢公莽以九錫…袞冕…九旒”라 하여 구석 중 의복은 곤면(袞冕)과 구류(九旒)로 9류면 9장복이다. <Fig. 1(a)>는 중국 산둥(山東) 제남(濟南)에서 출토된 서한(西漢)시대 가채도용(加彩陶俑)들로 당시 면관(冕冠)을 쓴 검은 의(衣)와 붉은 상(裳)을 착용한 관원(官員)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Fig. 1(b)>는 <Fig. 1(a)>, 기남(沂南) 한묘(漢墓) 화상석(畫像石), 그리고 문헌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 복원한 한대 황제의 면복, 면관, 적석(赤舄)의 복원도(復元圖)이다.

왕망의 구석 이후 구석은 다원적 국제 질서 체제가 시작된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의 위진남북조시대에 다시 등장한다. 7세기 당(唐)대 백과사전인 『예문유취』 53권 치정부하 석명편에는 후한의 반옥(潘勗)이 조조(曹操)를 위왕(魏王)으로 책봉한 글[後漢潘策魏武帝九錫文], 위(魏) 문제(文帝) 조비(曹丕)가 황제국으로서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강남에서 강한 세력을 보유한 경쟁국이었던 오(吳)의 손권(孫權)을 왕으로 책봉한 글[魏文帝策命孫權九錫文], 그리고 송의 개국공신이었던 부량(傅亮)이 왕위 찬탈을 하고 송을 세운 유유(劉裕)를 황제로 책봉한 글[宋傅亮作宋武帝九錫文]의 구석문 세 편이 전한다. <Fig. 2>는 송대에 모사된 당 염립본(閭立本)이 그린 제왕도권(帝王圖卷)의 송대 모사본 일부로 ‘오의 통치자 손권[吳主孫權]’(재위 229~252 AD)이 면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중국 역대 제왕의 면복을 연구한 Choi(2007)도 정치적 안정기였던 한대보다 오히려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왕조 교체가 빈번했던 위진 남북조 시기에 면복 제도의 세밀한 부분들이 정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Fig. 2. Sun Quan, the Sovereign of the Wu.
From *The Thirteen Emperors* (MFA : 31.643)
[Slide set]. (1992). #27.

주대 제도의 완전한 복고를 통해 자신들의 정통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왕조들의 열망에 의해 면복 제도에서 많은 전통적인 요소들이 정비되고 체계화되고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수·당의 일원적 체제가 끝난 10~12세기에 들어 다시 등장한 구석은 후진을 통해 요에 받아들여졌다. 후진은 후당의 권신이었던 석경당이 거란에게 연운16주를 할양하는 조건으로 반란에 성공하여 세워진 나라이다. 『요사』 의위지일(儀衛誌一)에 의하면 회동(會同)원년(938)에 거란 황제의 존호책례를 거행하기 위해 후진에서 사신들이 건너왔고, 이들이 가지고 온 수레와 법률이 천자의 수레와 의복으로 거란에게 전해졌다. 947년 거란이 후진을 멸망시킨 이후부터는 당과 진의 문물을 자신들이 방식대로 변용시켜 사용하였다.

요 황제는 후진을 통해 동아시아의 진정한 천자로 군림하기 위한 의식이 책봉례임을 인식했다. 그리고 자신이 천자임을 확증하고 책봉·조공 관계에 있는 번국 위에 군림하기 위해 석명례를 시행하였다. 요가 고려에게 시행한 석명례는 『고려사』 세가 책봉문에서 발견되며, 석명례 제도의 발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요대에 정립된 최고의 예우로서 고려 왕의 구석례는 금으로부터의 책봉 기간에도 이어졌다.

III.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 · 왕세자 관복 고찰

앞서 서문에서 서술하였듯이 『고려사』 여복지에서 관복 개념은 조정의 복식을 총괄하고 등급을 구분하여 질서를 잡히게 한 복식과 중국 왕조로부터 사여된 복식이

Fig. 1. Mianfu (冕服) in the Han Dynasty (a) Pottery figurines in Mianfu (b) Depiction of Emperor's Mianfu).
From Shanghai Xiquxue xiao fuzhuang Shiyuanjiuzu. (1984). pp. 44~45.

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타났다. 고려와 교류하였던 중국 왕조의 『요사』 의위지, 『송사』 여복지, 『금사』 여복지, 『원사』 여복지, 『대명회전』에서 관복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전자의 관복 개념은 명대의 예전(禮典)인 『대명회전』에서 관찰되었으며, 후자의 사여 관복 개념은 중국 사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 사서에서 관복은 책봉 의례나 제례에 착용되는 위상이 높은 복식을 지칭하고 있었다. 『금사』 여복지에는 황후 관복과 황태자 관복이 구룡사봉화주관과 휘의, 구류면 구장복을 가리켰다. 『원사』 여복지의 황태자 관복에서도 구류면 구장복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과 왕세자 관복 기록을 『고려사』 세가 왕, 왕세자 책봉 기록과 대조하며 살펴본 결과, 현종13년(1022) 거란의 책봉 기록과 의종2년(1148) 금의 책봉 기록만 누락되고, 책봉 시 관복이 사여되었을 경우가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사여 관복이 곧 중국 왕조에서 고려 왕 또는 왕세자 책봉 시의 석명임이 확인되었다. 왕 관복의 사여는 1043년에서 1065년까지 거란에서 다섯 차례, 1078년에 송에서 한 차례, 1085년에서 1108년 사이 요로부터 네 차례, 1142년부터 1212년까지 금에게서 네 차례 있었고, 왕세자 관복의 사여는 문종의 태자 훈(勳)에게 두 차례, 숙종의 태자 우(瑀)에게 두 차례 이루어졌다(Kim, 2011).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거란 국호의 변경은 사여 기록에도 정확히 반영되어 1043년부터 1065까지는 거란에게, 1085년부터 1108년까지는 요에 의해 사여 받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송으로부터의 관복 사여는 문종32년(1078) 송과의 관계를 재개하였을 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요의 세력이 약해지던 1103년부터 1123년 사이 송 휘종(徽宗)이 책봉을 권유하기 위해 밀유(密諭)와 함께 관복을 사여하였으나 이 기록은 『고려사』 여복지에 기록되지 않았다.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과 왕세자 관복에는 고려 국왕 또는 왕세자 책봉 시 관복 사여 기록이 중국 왕조별, 왕대(王代)별, 시간 순으로 남아있으며, 고려가 중립 정책을 취했던 시기의 관복 사여 기록은 빠져 있었다.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과 왕세자 관복을 『고려사』 세가 기록과 병기하여 정리한 표는 <Table 1>과 같다. 품목 순서 및 띄어쓰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기록하였다.

1. 거란의 사여 관복

918년에서 995년 사이 고려가 오대와 송과 맺은 책봉 횟수는 총 15회로 후당에서 태조를, 후진에서 태조와 혜

종을 책봉했으며, 후주(後周)에서 광종을 책봉하였고, 송에서 광종, 경종, 성종을 책봉하였다. 이들과의 책봉 관계에서는 의복이 사여되지 않았고, 후당에서 태조 책봉 시 국신물(國信物)과 은기(銀器), 필단(匹段) 등이 사여되었고, 혜종 책봉 시 죽책(竹冊)과 법률(法物)이 사여되었다. 송으로부터 책봉될 때에는 사면령(赦免令)이 공포되었다.

『고려사』에서 국왕 책봉에 동반된 첫 번째 사여 관복 기록은 현종13년(1022) 4월의 기록이다(Kim, 2010; Yi, 2011; Yim, 1993). “사거복의물(賜車服儀物)”이라는 짧은 기록은 『삼국사기』(Kim, 1145/1997-1998) 고구려본기 영양왕2년(591)에 기록된 “책봉위고구려왕(策封爲高句麗王) 잉사거복(仍賜車服)”과 유사하다. 수(隋)와 대적하여 살수대첩(612)에서 승리할 만큼 강성했던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당시 고려도 귀주대첩에서 거란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되어 있었다(Noh, 1999). 귀주대첩 이전에 거란이 현종에게 계속 요구했던 친조는 왕이 몸소 거란의 수도에 입조해 책봉 받는 것이었다.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당했음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밝히는 의미였다(Koo, 2010). 그 무렵 거란은 한식 국호인 ‘요’에서 ‘대거란’으로 국호를 교체하면서 북방 민족의 기질을 회복시켜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Kim, 2004; Wittfogel & Feng, 1949), 1014년에는 탈타르(Tatar)족이 세운 조북(阻卜)을 정복하고 추장 우파(烏八)를 거란의 수도에 입조시켜 왕으로 책봉하였다(Wittfogel & Feng, 1949). 거란은 고려의 현종도 친조하여 책봉 받기를 요구했지만, 고려는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거란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현종13년(1022)의 책봉에 동반된 석명(錫命)은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상징물이었다.

Yim(1993)은 현종13년(1022)에 거란이 사여한 관복이 한식(漢式) 조복(朝服)이라 추정하였다. 그러나 1036년 흥종 존호책례 시에 황제는 용곤(龍袞)을 입고, 북남신료들이 모두 요제(遼制)의 조복을 착용했다는 『요사』의 위지이(儀衛誌二) 흥종(興宗)5년(1036)의 기사는 정복 전쟁으로 강해진 국속 바탕에 한식이 결합된 요제가 제정되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종13년(1022)에는 요제, 즉 거란 국속이 짙은 수례와 의복이 사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 사여 관복은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에 실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유교적 예에 합당하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 부분에는 정종9년(1043) 11월

Table 1. Records of bestowment of robe & crown from 「Goryeosa」

Period	King's reign			Bestowed by	Records of bestowment	
	King	Year	Month		Yeobokji (輿服志)	Sega (世家)
Bestowment of king's robe & crown						
1043.11	Jeong-jong	9th	11th	Khitan	Xingzōng*	冠服 車・服・冠・劔・印綬・國信物
1049. 1	Mun-jong	3rd	1st	Khitan	Xingzōng	冠服 車・服・冠・劔・印綬(及)衣帶・匹段・鞍馬諸物
1055. 5		9th	5th	Khitan	Xingzōng*	冠服圭 車輅・冠服・圭・劔(等及特賜諸物)
1057. 3		11th	3rd	Khitan	Dàoōng*	冠服 車輅・冠服・銀器・匹段・鞍馬・弓箭等
1065. 4		19th	4th	Khitan	Dàoōng*	九旒冠・九章服・玉圭 車輅・冠服・銀器・匹段・鞍馬・弓箭・酒等 (九旒冠・九章服・玉圭・玉冊・象輅・衣褥・匹段・弓箭・鞍馬等物)
1078. 6		32th	6th	Song	Shénzōng	衣二對・腰帶二條 國王衣二對・銀器・匹段・龍鳳茶・法酒・樂器・龍鳳燭
1085.11	Seon-jong	2nd	11th	Liao	Dàoōng	冠冕衣帶圭 冠冕・車馬・圭・印・衣帶・綵段等物
1097.12	Suk-jong	2nd	12th	Liao	Dàoōng	冠冕章服圭 玉冊・圭・印・冠・車輅・章服・鞍馬・匹段等物
1104. 4		9th	4th	Liao	Tiānzuòdì*	衣對 簡冊・車輅・衣對・匹段・鞍馬・弓箭諸物
1108. 2	Yejong	3rd	2nd	Liao	Tiānzuòdì	冠冕衣帶 冠冕・車輅・衣帶・匹段・鞍馬諸物等
1142. 5	Injong	20th	5th	Jin	Xizōng	九旒冠一頂・九章服一副・玉圭一面 九旒冠一頂・九章服一副・玉圭一面・玉冊一副・金印一面・象閣一・馬四匹, 別賜衣對・匹段・器用若干・鞍?馬三匹・散馬四匹
1172. 5	Myung-jong	2nd	5th	Jin	Shizōng	九旒冕一頂・九章服一副・玉圭一面 九旒冕一頂・九章服一副・玉圭一面・玉冊一副・金印一面・駝紐象輅一・馬四匹,(別賜)衣五對・細衣著二百匹段・細弓一張・翎大箭二十八隻・鞍轡馬二匹・散馬七匹
1199. 5	Shin-jong	2nd	4th	Jin	Zhāngzōng	冠服 車服・金印・匹段・弓箭・鞍馬等物
1212. 7	Gang-jong	1st	7th	Jin	Yongji	冠服 車服・金印・匹段・弓箭・鞍馬等物
Bestowment of crown prince's robe & crown						
1057. 3	Mun-jong	11th	3rd	Khitan	Dàoōng*	冠服 車輅・冠服・銀器・匹段・鞍馬・弓箭等
1065. 4	Hun [†]	19th	4th	Khitan	Dàoōng*	九旒冠・九章服・牙笏 車輅・冠服・銀器・匹段・鞍馬・弓箭・酒等 (九旒冠・九章服・牙笏・竹冊・革輅・衣對・匹段・鞍馬・弓箭・酒等物)
1100.10	Suk-jong	5th	10th	Liao	Dàoōng	衣帶 印綬・簡冊・車輅・(并別賜)衣帶・匹段・鞍馬・弓箭諸物
1104. 4	Woo [†]	9th	4th	Liao	Tiānzuòdì*	衣對 簡冊・車輅 (并別賜)衣對・匹段・鞍馬・弓前諸物

*: occasion of elevating honorific title of the emperor

†: name of the crown prince

관복 사여 기록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거란은 정종5년(1039) 정종을 책봉하였는데 이 때 관복 사여는 없었다. 거란은 이후에도 책봉을 먼저하고, 가책을 통해 관복을 사여하는 방식을 보인다. 1043년 고려 정종이 관복

을 사여받은 시점은 거란 흥종이 송으로부터 매해 받는 세폐를 증가시키기로 합의한 직후이다. 거란은 송과 전연지맹(澶淵之盟)(1005)을 맺어 매해 비단 20만 필, 은 10만량을 받고 있었는데, 1042년 송-서하 전쟁 중에 거

란이 중립을 지키기로 하면서 추가로 비단 10만 필, 은 10만 량을 받기로 하였다(Wittfogel & Feng, 1949). 거란 홍종은 이 일로 황제의 존호를 격상하였고, 1043년 3월 고려는 홍종의 가상존호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냈다. 같은 해 11월 거란은 133명의 대규모 책봉사를 고려에 보내어 정종을 가책하였다. 당시 책봉사의 규모는 제후왕 중 으뜸으로 예우한 것이었고, 특히 법전에 따른 총장(龍章: 고관대작의 옷)이 사여되었다.

“법전에 따른 총장”에 대해서 Yim(1993)은 이를 한식 조복 제도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식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면복이 사여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 첫번째 이유는 1043년이 거란에서 예제(禮制)를 정비하던 시기라는 점이다. 『요사』에 따르면 “詔復定禮制”라 하여 홍종12년(1043) 5월 예제를 다시 정하라는 조서(詔書)를 반포하였고, 홍종15년(1046)에 예전이 완성되었다. 『요사』 103권 문학상(文學上) 소한가노(蕭韓家奴)편에는 홍종의 조서 내용과 예전 편찬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조서에 이르기를, “예로부터 천하를 지배하는 자는 예의에 밝고, 법도가 발랐다. 우리 조정이 일어난 이후 모든 황제들은 덕(德)을 갖추었으나, 안으로 밖으로 우리 문화를 향하는 시점에 그럴듯한 예서(禮書)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후세에 보여줄 것이 없다. 경과 [야율]서성은 옛것을 참작하고 현재를 헤아려서 예전을 만들도록 하라. 의문점이 있으면 북원(北院)과 남원(南院)에게 같이 의논하라.”라고 하였다. 이 조서를 받들어 거란과 한(漢) 문자에 능통하였던 소한가노(蕭韓家奴)는 황족 야율서성(耶律庶成)과 함께 약 삼 년간 방대한 고문헌(經籍)을 고찰하고 천자에서 서인(庶人)에 이르는 최근의 관행, 전통적 관습을 수집하여 옛 제도에 거스르지 않는 예전 3권을 집필하여 황제에게 바쳤다. 책봉문에 명시된 법전에 따른 총장은 당시 집필 중이던 거란의 예전에 따른 관복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이유는 홍종 재위 기간인 중희(重熙: 1032~1055)년간이 정통 한식(漢式)으로 복고(復古)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Kim, 2004; Wittfogel & Feng, 1949). 『요사』 의위지이의 “重熙以後 大禮并漢服矣”라는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중희년간 이후부터는 대례(大禮)에서 북·남반 모두 한복(漢服)을 착용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구석의 의미가 실린 『모시정의』가 1045년 4월 고려 왕실의 비서성(秘書省)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 고려 조정에서는 주대부터 내려온 구석의 의미에 대해 인식했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구석에서 의복은 위계질서와 음양오행의 의미가 색상, 형태, 수로서 상징적으로 부여된 면복이었다. 네 번째

이유는 당시 정종이 원구단을 일컫어 말하는 남교(南郊)의 단(壇)에서 거란에게 책명 받았다는 사실이다(Shim, 2002). 원구단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으로 이 곳에서 고려 왕의 책봉례를 거행하였다는 것은 제복(祭服)으로서도 기능하는 면복이 사여되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거란에서 받은 두 번째 사여 관복 기록은 문종3(1049) 1월의 기록이다. 정종 대와 마찬가지로 문종1년(1047)의 책봉 시 석명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책이었지만 첫 책봉 예물이었다. 정종9년(1043)과 문종3년(1049)의 사여 품목의 표기는 거(車: 수레)·복(服: 의복)·관(冠: 모자)·검(劍: 의식용 칼)·인(印: 도장)·수(綬: 의식용으로 늘어뜨리는 장식) 등으로 현종13년(1022)의 거복(車服: 수레와 의복)에서 발전된 형태를 보인다. 문종은 정종보다 의대(衣帶), 필단, 안마(鞍馬: 안장이 갖추어진 의식용 말)를 추가로 받았다.

문종은 1055년부터 1065년까지 10년 사이에 거란에 의해 세 차례나 가책되었다. 가책이 거듭되면서 관작이 높아지고, 공신호가 수여되었다. 가책 때마다 석명이 동반되었다. 이 기간 동안 『고려사』 세가의 석명 기록은 앞선 시기와는 달리 거로관복(車輅冠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문종9년(1055) 5월 가책 시 문종이 받은 관복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면복 제도를 상징하는 규(圭)가 처음으로 사여 기록에서 관찰된다는 점이다(You, 1973). 규는 왕이 제사(祭祀)나 조빙(朝聘) 때 손에 드는 것으로 천자가 제후를 봉하는 신인(信印)이기도 했다. 이 시기 이후로 규는 인(印)과 함께 책봉의 표징으로 기능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난면팔장(鸞冕八章)이라는 기록이다. 난면팔장은 『전당문』 201권 청개정장복주(請改定章服奏)에 따르면, 당 의봉(儀鳳: 676~679)년간 소지기(蘇知機)가 주청한 장복 개정안에 의해 개정된 당대 면복의 일종이다. 그것은 팔류면팔장복(8旒冕8章服)이며, 『주례』 전명편에 기록된 왕에게 소속된 삼공의 예수인 8을 근거로 하였다. 요, 금대의 시각적 자료가 미비하여, 송대에 섭송의(聶崇義)에 의해 편찬된 『주례』, 『의례』, 『예기』의 도해서(圖解書)인 『삼례도』에 기록된 삼공(三公)의 취면(毳冕) 모습을 참고하면 <Fig. 3(a)>와 같다. 문종은 이 때 붉은 색과 상아로 장식된 수레인 상로(象輅)와 함께 동로(彤旅: 붉은색과 검정색 활과 화살), 변조(鴈胙: 제사 고기)를 받았다.

문종11년(1057) 3월의 가책은 거란 도종(道宗)의 즉위와 존호가상이 계기가 되었다. 문종은 거로관복 외에도 은기와 필단, 의식용 말, 활과 화살을 추가로 받았다. 『고려사』 세가 책봉문에 의하면 이 시기 받은 의식용 말

은 백마(白馬)였으며, 활과 화살은 붉은 색이었다. 이와 함께 대길(大吉)과 성공[无不利]을 의미하는 고대 청동 제기(祭器)인 옥현(玉鉉)도 받았다. 이 시기 문종의 태자 훈의 가책도 이루어졌으며, 태자 책봉에서도 거로(車輅), 관복, 은기, 필단, 의식용 말, 활과 화살이 사여되었다.

8년 후 문종 19년(1065) 4월의 가책은 1063년 거란 황실 내부의 반란을 진압한 도종의 존호가상과 거란 황태자 양왕(梁王) 준(濬)의 책봉이 계기가 되었다.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63권에는 도종 8년(1065) 존호가상을 계기로 내외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석(錫)을 내리면서 함옹(咸雍)원년을 선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 고려 왕에게도 특별히 예우를 더하여 예수를 격상시킨 관복을 사여하였다. 거란의 사여품은 최고 예우의 수인 9를 사용한 구류관(九旒冠)·구장복(九章服)·옥규(玉圭)·옥책(玉冊)·상로·의대(衣帶: 왕 便服의 敬語)·필단·활과 궁전(弓箭)·안마(鞍馬)·주(酒)였다. 태자 훈에게도 예수 9가 사용한 예물이 사여되었고, 아홀(牙笏: 상아 소재의 홀), 죽책, 혁로(革輅)의 품목에서 왕과 구분되었다. 『삼례도』에는 제후들 중 가장 높은 상공의 곤면<Fig. 3(b)>과 왕의 곤면<Fig. 3(c)>이 그려져 있어 당시의 9류면 9장복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상공의 곤면에는 내려가는 용[降龍]이 그려진 반면, 왕의 곤면에는 승천하는 용[乘龍]이 그려져 있다.

Fig. 3. Mianfu (冕服) from *Sanlittu* (三禮圖) ((a) Sangong's Cuimian; (b) Shangong's Gunmian; (c) Emperor's Gunmian). From Niè. (10C/1676). p. 3, 7.

지금까지 살펴본 거란에서 고려에게 사여한 사여 관복 명칭은 거복, 거복관, 거로관복으로 추가 확장되고 있으며, 사여 품목에서도 천자가 제후를 봉하는 신인으로서의 징표가 인에서 규를 포함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종 9년(1055)까지 8류면 8장복인 난면팔장에 포함되었던 검은 문종 11년(1057)과 9류면 9장복이 사여된 문종 19년(1065)의 사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문종 19년(1065)에 이르러 사여 관복이 9를 예수로 한 구류면 구장복까지 예우가 높아진 것은 고려와 거란의 측면에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고려의 측면에서는 문종 대에 고려가 번성하였으며, 송과 거란의 줄다리기 외교를 통해 고려의 국제적 입지가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거란의 측면에서는 홍종, 도종 재위 기간 동안 한식 제도의 수용과 변용을 통해 관리에서 백성들까지 복식 제도가 정립되는 등 문화적으로 번성하였지만, 황실 내란과 지방의 반란, 가뭄 등의 천재지변 등으로 국력이 쇠퇴하여 번국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2. 송의 사여 관복

고려 문종은 국제 관계 상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인정하여 요의 책봉을 받았지만, 한족인 송과의 교섭을 재개했다. 문종 25년(1071) 3월 문종은 송에 사신 김제(金悫)를 보내 표와 예물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 해 6월 김제가 송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송 황제의 칙서(勅書) 5통과 함께 회사(回賜) 예물로서 국신물과 의대금기(衣帶錦綺) 등을 가져왔다. 그리고 6년 후인 문종 32년(1078) 6월 송에서 국신사(國信使) 안도(安燾) 등이 고려에 도착하여 왕에게 송 황제 신종(神宗)의 조서와 함께 석명이 동반되었다. 『고려사』 세가 문종 32년(1078) 7월 기사에는 성종 7년(988) 10월 중국 사신을 맞이한 이후 90년 만의 중화사신(中華使臣)이었다고 기록한다.

『고려사』 여복지에 기록된 송으로부터의 사여 관복은 거란의 사여 관복과는 달리 관복의 소재와 세부 명칭부터 그것을 짠 주머니, 상자, 보자기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순서는 그대로 하고,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통해 재구성하여 아래에 전문을 기록하였다.

衣 二對. 各金銀葉裝染匣盛.

一對, 紫花羅夾公服一領, 淺色花羅汗衫一領. 紅花羅

繡夾三一條, 紅花羅繡夾包一條, 紅花羅繡勒帛一條,
白綾夾袴一腰, 靴一紅透背袋盛. 紅羅繡夾複二條.
腰帶二條. 各紅透背袋盛 羅繡複一條 金鍍銀匣盛.
一條, 玉 一十六稻 鏤塵百戲孩兒 頭尾共一十事 玳瑁
金 紅成釘.
一條, 透犀 一十七稻 頭尾共一十事 玳瑁
金 紅成釘.

이를 풀어 설명하면, 의(衣)는 총 2습[二對]으로 각각 금은 잎으로 장식된 옷칠상자[金銀葉裝奩]에 담았고, 한 습의 구성은 자색 공복(公服) 1령(領)과 한삼(汗衫: 공복 안에 착용하는 속옷) 1령, 첩(襜: 앞에 두르는 폐슬 같은 것) 1조, 포두(包肚: 허리에 보온이나 장식용으로 두르는 것) 1조, 늑건(勒帛: 직조된 허리띠[絲織腰帶]) 1조, 고(袴: 바지) 1요(腰), 화(靴: 목이 높은 신발) 1켤레[綱]이다(Dan, 2012). 화는 속이 비치는 붉은 주머니[紅透背袋]에 넣었고, 각 상자는 붉은 라에 수를 놓은 겹 보[紅羅繡夾複]로 썼다. 요대(腰帶)는 총 2조(條)로 각기 속이 비치는 붉은 주머니에 넣어 은도금 상자[金鍍銀匣盛]에 담았다. 각 상자는 라에 수놓은 보[羅繡複]로 썼다.

요대 중 하나는 옥 띠돈 11개에 백희아해(百戲孩兒: 뛰 어노는 동자들이) 새겨진[鏤塵] 희동대(戲童帶)였고, 또 하나는 투조된 무소뿔[犀] 띠돈 11개가 장식된 투서대(透犀帶)였다. 투서대의 투(透)는 통(通)과 함께 투조(透彫)된 것을 의미하고, 서(犀)는 무소뿔을 의미하여, 투조된 무소뿔 띠돈이 장식된 대를 의미한다(Seol, 2011). 이 때 투서대의 투조 문양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두 띠 모두 띠돈 바닥에는 대모(玳瑁)를 덧대었고[襯], 버클 역할의 금속 띠고리는 붉은 가죽혁대에 못으로 고정되었다. 이와 같이 11개의 띠돈이 부착된 과대의 모습은 도식화된 일자형 과대<Fig. 4>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Seol, 2011). 한편, 기사에 기록된 “一十六稻”, “一十七稻”는 요대의 중량으로 추정된다. 『송사』 여복오(輿服五)에서도 확인되듯이, 송대에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 과대 띠돈의 소재와 중량에 차등을 두었으며, 과대 명칭을 표기할 때 중량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량의 단위는 량(兩)을 사용하였는데, 한 량은 3.75g이다(Lee,

1999). 한편, 도라는 음가를 지닌 “稻”는 돈과 발음상 유사하며, 돈은 금속의 무게를 잴 때 쓰이는 단위로 1돈은 3.75g을 나타내므로, “稻”와 “兩”은 당시 무게 단위로 혼용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사』 여복오에 따르면 “景德三年, 詔通犀, 金, 玉帶, 除官品合服及恩賜外, 餘人不得服用”라 하여 사여된 통서대와 옥대는 금대와 함께 송에서 관품(官品)에 합당한 관복이나 황제가 상으로 내리는 은사(恩賜)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서가 내려진 품목이었다. 또한 『송사』 여복삼(輿服三)에 따르면 “皇太子之服...常服: 白紗折上市, 紫公服, 通犀金玉帶”라 하여 자색 공복은 통서 금옥대와 함께 황태자의 상복에 준하는 복식이었다(Ryu, 1998).

송은 자국의 황태자에 준하는 정1품의 예를 갖추어 자색 공복 2습과 옥대, 통서대를 고려 문종과 태자 훈에게 사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여된 공복의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 요대와 늑건이 잘 보이게 그려진 송 인종(1010~1063)의 초상화<Fig. 5>를 살펴보면, 붉은 공복과 공복 소매 부리 끝의 흰 부분과 목 부분의 깃에서 확인되는 흰 한삼, 붉은 늑건과 붉은 요대를 관찰할 수 있다. 『고려도경』 권7 관복(冠服) 왕복(王服)편에는 고려 국왕이 상복(常服)으로 상포(緇袍) 즉, 담황색 포를 입었지만 송의 사신을 맞아 외교 의례를 행하면서 자색 공복을 착용하였음을 알려주는 기사가 있다(Lee, 2012). 이후 1103년(숙종8) 6월과 1110년(예종5) 6월에 책명을 권유하는 조서와 함께 송에서 사여한 의대(衣帶)는 위의 맥락

Fig. 4. Diagram of Gwadae in the Goryeo Dynasty.
From Seol. (2011). p. 45.

Fig. 5. Portrait of Emperor Renzong of Song.
From Huáng. (1997). Front cover.

에서 공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에서 사여된 공복에는 요에서 사여된 관복과 구별되도록 ‘의’ 또는 ‘국왕의(國王衣)’라는 명칭이 붙었다.

3. 요 · 금의 사여 관복과 고려의 중립 정책

고려가 문종 대에 송과 통교를 재개하자 요는 영토 확장 등을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하였다(Shim, 2002). 선종(宣宗)대 초반에는 양국의 긴장이 야기되었지만, 다시 요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선종2년(1085) 11월 요에게서 책봉된다. 요에게 세 차례의 책봉과 한 차례의 가책을 받았던 1085년부터 1108년까지의 사여 품목을 살펴보면 국호가 거란이었던 시기에서 달라진 품명이 확인된다. 우선, 관복의 명칭을 관면의대(冠冕衣帶) 또는 관면장복(冠冕章服)으로 표기함으로써 면복 제도를 사여했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 때 관면의대는 관면장복과 동일 개념으로 책봉 시 사여된 면복 일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종19년(1065)에 이르렀던 최고의 예우로서의 구석은 숙종대까지 유지되었다. 『고려사』 세가 숙종9년(1104) 4월의 책봉문에서는 “恩隆九錫(은혜가 구석에 융숭하니)”라고 하여 고려 왕이 구석을 받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숙종 대의 원자 책봉은 거란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졌던 문종 대의 태자 책봉과는 달리 숙종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숙종은 헌종의 숙부로 정변을 통해 왕위를 선양하여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통정성을 부여하고, 왕위를 계승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 책봉을 요에 요청하였고, 숙종5년(1100) 10월 원자 우의 책봉이 거행된다. 이 때 책봉의 신인으로 인수(印綬: 도장과 도장끈)가 사여되었다. 의대(衣帶)도 함께 받았는데, 관면(冠冕)과 함께 기록되지 않아 면복 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숙종9년(1104)에는 요 천조제(天祚帝)의 준호 가상으로 숙종과 태자 우의 가책이 있었다. 이 때 왕과 왕세자의 편복인 의대(衣對[襪])를 보내는 등 품목이 간략해졌다. 요에게서 받은 마지막 사여 관복은 예종3년(1108) 2월로, 요는 예종에게 면복 제도인 관면의대를 사여했다.

12세기 들어 요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송 휘종은 고려와의 조공·책봉 관계를 위해 조서에 동봉한 밀유와 함께 석명을 동반하였다. 숙종8년(1103) 6월에 왕 의대(衣帶), 필단, 금옥기(金玉器), 활과 화살[弓矢]과 안장이 갖추어진 의식용 말[鞍馬] 등을 보냈고, 숙종 대에 조공·책봉 관계가 성사되지 않자, 예종5년(1110) 6월에도 조서에 동봉한 밀유와 함께 숙종8년에 보냈던 것과 같은

사여품을 보냈다. 『고려사』 세가 예종5년(1110) 6월에 기록된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송은 고려에게 미승인의 의미인 ‘권(權)’자를 떼고 진왕(眞王)의 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는 예종11년(1116) 4월 갑자(甲子) 연호를 사용하면서 송과 요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하였다. 예종 사후 인종1년(1123) 6월, 송은 조위(弔慰) 조서와 함께 인종에게 다시 책명을 권유하지만, 고려는 송의 책봉 권유에도 국제 형세를 지켜보면서 중립으로 일관했다. 『고려도경』은 당시 조위 조서를 가지고 왔던 송 사절단 일행이었던 서궁(徐兢)에 의해 지어졌다. 『고려사』 여북지에는 고려가 중립 정책을 유지한 기간 동안 송으로부터 받은 석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고려는 예종11년(1116)부터 인종20년(1142)까지 중립 정책을 유지하였다. 『고려사』 여북지 왕 관복에 이어진 왕 제복에는 중립 정책이 행해졌던 인종18년(1140)의 체례복장(體禮服章) 제도와 예종 대 부터 준비되어 의종 조에 상정된 고금상정례의 기록이 전한다(Kim, 2003). 이를 통해 왕 관복은 중국 왕조의 질서를 수용한 제도이고, 왕 제복은 고려 국의 질서를 나타내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례복장이 제정되었던 인종18년의 고려에서는 인종13년(1135)에 발생한 묘청의 난을 계기로 개혁적이고 자주적인 세력이 도태되고,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 세계관을 지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립 정책을 유지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제복 제도는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Lee, 2012).

고려 왕을 구석으로 책봉하는 구석례는 금으로부터의 책봉에서도 계승되었다. 인종5년(1126) 4월, 이자겸 정권은 고려를 신(臣)이라 칭하면서 금에게 사대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고려사』 세가 인종6년(1125) 6월 기사에 의하면 “抑令小國稱臣 仍約定禮數 一依事遼舊例 小國不得已而從之”라 하여 요를 멸망시킨 금은 고려와 예수를 약정하여 요와의 책봉 관계인 구례(舊例)에 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동아시아의 국제 형세를 지켜보면서 1142년 3월 남송(南宋)이 굴복한 후에야 금에게서 책봉 받았다. 『고려사』 세가 인종 20년(1142) 5월 기사에서는 “詔曰, 九儀錫命, 禮本於周官, 諸侯稱王, 事從於漢制”라 하여 인종이 금으로부터 처음 책봉될 때 구석으로 책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은 요와 달리 책봉 의식을 왕궁 안으로 옮겨서 진행하였다.

금과의 책봉 관계에서는 무인정권이라는 시대적 특성상 태자 책봉은 없었으며, 사여 품목 또한 첫 책봉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Shim, 2002). 상로와 그 수레를 끄는

말 4필, 제후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 복식에 문양화된 구류관·구장복, 천자가 제후를 책봉할 때 표신으로 주었던 옥규, 옥책, 금인(金印), 필단, 활과 화살[弓箭], 안마 등 세부 명칭이 기록되면서 고려 국왕에 대한 구석례로 정착되었다. 신종 대부분은 책봉시의 사여 품목 일습을 총칭하는 용어로 관복 또는 거복이 사용되었다. 『동문선』(Seo, 1478/1968) 제34권 사책표(謝冊表: 책봉을 사례하는 표)에서 발견되는 의종의 책봉 기록에서도 거복으로 표기되어 있다. 요대의 석명에서 발견되던 검은 금대가 되면 발견되지 않는데, 실제 면복 제도에서도 금대 이후에 면복 제도에서 검은 사라졌다(Choi, 2007).

당시 사여된 수레[輅]와 복식은 남송 노부옥로도권(鹵簿玉輅圖卷)<Fig. 6>과 『삼례도』의 옥로도(玉輅圖)<Fig. 7>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Fig. 6>에서는 남송 대 천자의 옥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옥로는 푸른색 옥으로 장식되어 말 6필이 끌고 있다. 고려 왕에게 사여된 것으로 기록된 상로는 옥로와 유사한 형태로 상아(象牙)와 붉은 색으로 장식되어 말 4필이 끄는 수레였다. <Fig. 7>에서는 말 4필이 끄는 옥로와 곤복을 입은 왕이 제사를 집전하는 절복씨(節服氏) 6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려사』 여복지에 기록된 관복이 동

Fig. 7. Jade Chariot.
From Niè. (10C/1676). p. 4.

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국제 정치적 위계질서를 담은 석명 의복이라는 관점으로 왕 관복과 왕세자 관복 기록을 고찰하였다. 우선, 동아시아 외교 의례로서의 책봉과 석명을 살펴보았으며, 『고려사』 여복지의 구성 체계와 용어에 주목하여, 관복의 의미와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려사』 세가 책봉 기록과 해당 중국 왕조의 사료를 비교 고찰하여 간략하게 서술된 사여 관복의 내용을 보충하고, 기존 해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책봉 왕조별 사여 관복의 의미와 위상 변화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고려사』 여복지 왕 관복과 왕세자 관복 기록은

Fig. 6. Royal Procession of the Jade Chariot in the Nan Song (南宋) Dynasty.
From Songhuaquanji Bianjiweiyuanhui. (2009). pp. 42–55.

당시 동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차지한 천자에 의한 고려 왕 또는 왕세자 책봉 의례에 동반된 석명 기록이었다. 의복으로서의 관복은 고려 왕과 왕세자의 몸에 걸쳐져 위계적 국가 질서를 표상하였다. 따라서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두어 건국된 조선에서 『고려사』를 편찬한 역사가들은 고려 내부에서만 왕권의 의미를 지녔던 제복과 시조지복에 우선하여, 국제적으로 고려의 위상을 드러내고 국내에서도 왕권의 정통성을 승인하는 유교적 예에 따른 사여 관복의 위상을 가장 높게 인식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석명례는 역사적으로 다원적 국제 질서가 나타났을 때 출현하였다. 중국의 정복 왕조였던 요에 석명례가 전해진 것은 10세기 당 멸망 후 후진에 의해서였다. 정복 왕조였던 요와 금은 책봉과 석명례라는 수단과 상징 작업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중화 관념을 모방하려 하였다. 이는 진정한 천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요와 금의 석명례는 『고려사』 세가에 기록된 책봉문을 통해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요에서는 중희 연간(1032~1055) 예제의 정립과 함께 석명례가 정립되었다. 고려는 문종19년(1065)에 제후 왕 중 으뜸으로 예우 받는 구석에 이르렀다. 고려 왕의 구석의 예우는 금대까지 이어져 대륙 왕조의 고려에 대한 예로 정립되었다. 고려 말 명에 관복을 청할 때 적용시킨 이등체강(二等遞降)의 원칙은 고려를 격하한 의미라기보다는 고려 전·중기부터 관례로 정립된 구석례를 고수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류면 구장복은 이후 한국 전통에서 왕을 상징하게 되었다.

넷째, 고려와 송과의 관계는 명분적 사대관계가 아닌 실리를 추구하는 사대 관계였다. 송으로부터의 석명은 문종 대에만 기록되어 있고, 고려가 중립 노선을 따르기로 한 예종, 인종 대의 석명은 기록되지 않았다. 고려가 중립 노선을 따르던 예종, 인종 대에 고려 자체적인 예제가 정비되고 제복 제도가 만들어졌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다섯째, 석명 관복의 종류는 요와 금에 의한 책봉의 경우 대부분 면복 제도로 나타났으며, 송의 경우 공복 제도로 나타났었다.

고려 전·중기 국제적 외교 관계에서 책봉과 그에 따른 석명례의 일환으로 들어온 관복은 고려 국왕의 정통성 승인과 함께 국제 관계에서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복식이었다. 그러나 일원 체제인 명의 등장 이후 그 의미가 퇴색하였고, 등급을 구분하고 질서를 잡히게 한 복식으로서의 의미만 남게 되었다. 고려 왕의 관복과 왕의 제복

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eijing Airusheng shuzihua jishu yanjiu zhongxin. (2011). 中國基本古籍庫 [Database of Chinese classic ancient books]. *Beijing Airusheng shuzihua jishu yanjiu zhongxin*. Retrieved July 20, 2014, from <http://library.snu.ac.kr/Files/GujikuClientSetup.exe>
- Choi, K. S. (2007). *A historical and cultural study on emperor's Mianfu of China*. Shanghai: Dong Hwa University Press.
- Dan, H. R. (2012). *The honor guard uniforms in Yeobokji of Goryos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Huáng, Y. S. (1997). 宋仁宗 宋英宗 [Emperor Renzong and Yingzong of Song]. Jilin: Jilinwénshichubānshè.
- Jang, N. W. (2009). *Goryeo, Liao, and Jin: Cultural interac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eleventh and twelfth centuries*. Seoul: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Kim, B. S. (1997-1998). 譯註 三國史記 [Yeokju Samguksagi] [CD-ROM]. (Hanguk Jeongshin Munhwa Yeonguwon Yeoksayeongsul, Trans.). Seongnam, Korea: Hanguk Jeongshin Munhwa Yeonguwon. (Original work published 1145)
- Kim, C. W. (2003). On the publication of Sangjonggogumre and its contents. *東洋學*, 33, 233-252.
- Kim, C. W. (2011). The installation of the Crown Prince in the Koryo Dynasty. *역사와 경계*, 80, 25-57.
- Kim, H. J. (2008). 몸 국가 우주 하나를 꿈꾸다: 황제사경, 관자사편, 회남자, 황제내경 연구 [Dreaming of unity of the body-nation-universe: Focusing on Hwangjesakyong, Gwanjasapyeon, Heonamja and Hwangjenaekyeong] Seoul: KungRee.
- Kim, J. S., & Jeong, I. J. (2011). *국역 원전 高麗史 [Gukyeok wonjeon Goryeosa]* [CD-ROM] (Dong-A University Seokdanghaksulwon, Trans.). Seoul: Dongbang Media. (Original work published 1451)
- Kim, M. S. (2008). History: The official king's wear of the Goryeo Dynasty recorded in the Chapter of Rites of Goryosa: The history of Goryeo Dynasty. *동방학*, 14, 161-185.
- Kim, W. H. (2004). *契丹 社會文化史論 [Socio-cultural Historical Study of the Khitan]*. Seoul: Kyunginmunhwasa.
- Kim, Y. J. (2010).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uniform system in relation to organizing the centralized administration in the early Goryeo Dynasty. *한국중세사연구*, (28), 439-484.
- Koo, S. W. (2010). A political and diplomatic significance of the war against Qidan (契丹) during the reign of Hyeon-Jong (顯宗) in Koryo Dynasty. *역사와 경계*, 74, 85-127.

- Kwon, T. W. (1990). 高麗史與服志 研究 [Study on the Goryosa Yeobokji]. *국사관논총*, 13, 165–220.
- Lee, J. B. (1999). System of weight in the Koryo Dynasty. *역사와 세계*, (23), 577–603.
- Lee, J. S. (2008).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질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arly Goryeo Dynasty]. *韓國政治外交史論叢*, 29(2), 103–128.
- Lee, J. S. (2012). The level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people's self-consciousness of it, reflected in the Attires (服飾) of the Kings and the Officials. *韓國文化*, 60, 37–63.
- Niè, C. (1676). 三禮圖 [Sanlittu]. Shanghai: Tongwenshiju. (Original work published 10C)
- Noh, M. H. (1999). The view of the world and the eastern Emperor in Koryeo Dynasty. *한국사연구*, 105, 3–40.
- Park, Y. W. (2013). *고려사 여부지 역주* [Translation and comment on Goryosa Yeobokji]. Seoul: Kyunginmunhwasa.
- Poong, G. C. (2005). *中國上下五千年사* [5000 years of history of China] (W. G. Lee, Trans.). Seoul: Shinwonmunhwa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Ryu, S. O. (1998). *韓國服飾史* [History of Korean costume]. Seoul: Suhaksa.
- Seo, G. J. (Ed.) (1968). (국역) 東文選 [(with Hangeul translation) Dongmunseon] (Minjokmunhwachujinhoe Trans. & Ed.). (Original work published 1478). *Institution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Retrieved July 30, 2014, from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KO&seoJid=kc_ko_c006&gunchaId=av034&munchId=01&finId=003&NoDeld=&setid=9938766&Pos=0&TotalCount=1&searchUrl=ok
- Seol, Y. K. (2011). *A study on Gwadae (Government official's belt) in Goryeo Dynas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hanghai Xiquxue Xiao fuzhuang Shiyuanjiuzu. (1984). *Zhongguo Lidai Fushi*. Shanghai: Xuelin press.
- Shim, J. S. (2002). *Investiture of Goryeo's kings by imperial dynasties in China*. Seoul: Hye-An.
- Songhuaquanji Bianjiweiyuanhui. (2009). *宋書全集 第三卷, 二冊* [Songhuaquanji, Vol. 3(2)]. Hangzhou: Zhejiang Daxue Chubanshe.
- The Thirteen Emperors* (MFA: 31.643) [Slide set]. (1992). Boston: Museum of Fine Arts, Denman Waldo Ross Collection.
- Wittfogel, K. A., & Feng, J. (1949).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Vol. 36). Philadelphia, P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 Yi, S. H. (2011). *A study of the official uniforms in Goryeo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im, M. M. (1993). A study on the clothing systems on several countries related with Korea (Kyoro) in the period of 960-114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0), 31–47.
- You, H. K. (1973). *A study on Myun Bok: Korean royal crowns and robes as the main subj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un, P. (2005). The multistate system in Pre-Mongol East Asia. *만주연구*, 3, 43–59.
- Yun, P. (2007). Tributes investitures, and treaties in East Asian multistate system from the 10th to the 13th century. *東洋史學研究*, 101, 119–144.
- Zhū, X. X. (2013, July). 古代的“錫命” 禮. *百科知识*, (13), pp. 54–55.
- 九錫 [Jiǔcì]. (2004-2013). *Zdic.net*. Retrieved September 15, 2014, from <http://www.zdic.net/c/d/110/296683.htm>
- 周禮 [Zhouli]. (2002). (J. H. Ji & J. N. Lee, Trans.). Seoul: Jayumungo. (Original work published 1706)